

‘車와 食의 만남’… 르노코리아, 라이프스타일 공간 탄생

강남전시장에 ‘베리키친 강남’ 입점
연내 새로운 컨셉트 전시장 32곳 예정
전국 170개 전시장도 리뉴얼 진행중

르노코리아는 서울 강남구 언주로에 위치한 강남전시장을 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 공간으로 탈바꿈했다고 4일 밝혔다.

르노코리아가 지난 3일 오픈한 강남전시장은 연계 공간에 식당을 마련해 고객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차량과 브랜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꾸몄다. 르노 전시장 중 직영이 아닌 딜러사 운영점에서 식음료 공간을 도입한 사례는 강남전시장이 세계 최초다.

전시장에는 퓨전 음식점 ‘베리키친 강남’이 입점해 낮에는 샌드위치, 샐러드 등을 저녁에는 와인과 함께 퓨전 요리를 선보일 예정이다.

외관에는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반영한 새로운 파사드 디자인을 적용했다. 또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스마트 인증 기술로 언제든 방문 가능한 24시간 전시장 ▲AI 알고리즘을 통한 차량 상담 및 맞춤 견적 ▲고객 위치 기반 찾아가는 시승 예약 서비스 등 첨단 디지털 솔루션을 도입한 점도 특징이다.



르노코리아 강남전시장 내부 모습.

르노코리아는 강남전시장 외에도 전국 170여개 모든 르노코리아 전시장을 대상으로 리뉴얼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8년까지 모든 전시장 내부에 르노의 새로운 전시장 컨셉트인 ‘뉴알(NewR)’을 적용하는 한편, 주요 도심과 복합 쇼핑몰 등 고

객 접근성이 뛰어난 지역에는 스몰 앤 팬시 테마의 전시장을 도입할 계획이다. 새로운 컨셉트를 적용한 르노코리아 전시장은 올해 말까지 전국에 32개가 들어설 예정이다.

르노코리아 관계자는 “새로운 전시장들은 고객 접점 확대 및 서비스 만족 향상을 위해 상

담, 시승, 계약, 출고 등의 차량 구매 관련 서비스는 물론, 의류, 패션 액세서리, 자동차 모형 등 프랑스 디자인 감성의 ‘디 오리지널’ 굿즈와 다양한 브랜드 활동을 고객이 부담 없이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문화 단신

메가박스, 컨저링 등 개봉작 4편 돌비 시네마 상영

메가박스가 공포에서부터 뮤지컬과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장르로 가을 극장가를 이끌 9월 개봉작 네 편 ‘컨저링: 마지막 의식’, ‘프랑켄슈타인: 더 뮤지컬 라이브’, ‘어쩔수가없다’, ‘극장판 체인소 맨: 레제편’을 돌비 시네마로 상영한다.

3일 개봉한 ‘컨저링’ 시리즈의 마지막 이야기 ‘컨저링: 마지막 의식’은 공포 장르를 대표한다. 1986년 펜실베이니아, 자신의 집에 사악한 존재가 들어왔다고 주장하는 스컬 일가를 조사하던 워렌 부부가 지금껏 마주한 적 없는 가장 위험하고 강력한 악령에 맞서는 여정을 그렸다. 돌비 비전이 구현하는 어두운 배경 속 선명한 명암 대비가 돋보인다.

18일에는 뮤지컬 ‘프랑켄슈타인’의 공연 실황 영화 ‘프랑켄슈타인: 더 뮤지컬 라이브’가 개봉한다. 19세기 유럽, 죽지 않는 군인을 만들고자 한 과학자 빅터 프랑켄슈타인



9월 메가박스에서 ‘돌비 시네마’로 상영되는 작품들. /메가박스

과 그 실험으로 태어난 괴물의 비극적 운명을 그렸다.

24일엔 이병헌, 손예진 주연의 박찬욱 감독 신작 ‘어쩔수가없다’가 개봉한다. ‘다 이루었다’고 느낄 만큼 삶이 만족스러웠던 회사원 ‘만수’(이병헌)가 덜컥 해고된 후, 아내와 두 자식을 지키기 위해, 어렵게 장만한 집을 지켜내기 위해, 재취업을 향한 자신만의 전쟁을 준비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는다.

롯데시네마 ‘신카이 마코토 감독’ 작품 기획전 공개

롯데시네마는 ‘빛의 마법사’로 불리는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작품을 기획전으로 상영한다. 먼저,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재난 애니메이션 3부작으로도 널리 알려진 ‘스즈메의 문단속’, ‘너의 이름은.’, ‘날씨의 아이’가 라인업에 올랐다. 세 작품 모두 아름다운 작화, 색채감과 확연히 대비되는 각기 다른 재난, 재해를 배경으로 한 사람들의 인연, 아픔과 성장, 그리움을 그려낸 공통점을 갖고있다.

‘초속5센티미터’ 본편과 함께 신카이 마코토 감독이 직접 해당 촬영지를 다니며 촬영한 특별 제작기 영상이 추가된 ‘초속5센티미터x

특별영상 ‘어느 봄의 기억’” 또한 상영한다.

마지막으로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초기작으로 알려진 ‘언어의 정원’도 새롭게 선보인다. 이번 기획전 작품 중 오직 광음시네마에 서만 만날 수 있는 ‘언어의 정원’은 극중 빛소리와 천둥 소리 등 감성을 풍부하게 만드는 작품 속 주요 음향 소재들이 광음시네마의 정교하면서도 입체적인 음향 증폭 사운드 기술, 감독이 구현한 수채화 같은 작화감과 함께 어우러져 43분이라는 짧은 러닝타임에도 불구하고 관객들에게 높은 만족감과 감동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간접체험이 직접경험 자리 대체 기술·미디어 발전에 초라해진 삶

지난 2017년 콜드플레이 콘서트에 갔다가 크게 ‘현타(현실 자각 타임)’가 와서 올해 내 한공연엔 가지 않았다. 밴드 보컬인 크리스 마틴이 멋있어서 열창하는 그의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팔이 왜 이렇게 아픈가 생각해봤다. 공연이 진행되는 2시간 내내 카메라 감독이라도 된 것만양 휴대폰으로 콜드플레이 멤버들을 찍어 대느라 팔목이 나갔던 것이었다. 콘서트장에 갔지만, 맨눈으로 그들을 보진 못했다는 생각에 후회가 밀려왔다. 대체 나는 그날 뭘 보고 온 것인가.

언젠가 어디선가 한 가수가 공연 중 스마트폰으로 자신을 찍는 사람들을 보면서 화면 말고 자신을 보라며 휴대폰을 빼앗는 시늉까지 했다는 이야기를 얼핏 들은 적이 있다.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와 ‘시성비(시간 대비 성능)’가 지상 최고 가치로 여겨지는 사회에서, 현대인들은 경험을 외주화한다.

‘경험의 멸종’은 소셜미디어 시대의 ‘경험 왜곡’을 비판하며 기술과 미디어의 발전이 인간의 삶을 얼마나 초라하게 만들어 놨는지를 설명한다. 우리는 좋아하는 유튜브가 게임을 즐기는 모습을 보며 직접 플레이를 하는 듯 몰입하고, 다이어트 중 먹방을 보면서 대리만족한다. 또 영화 요약본을 2.5배속으로 시청하고는 교양을 쌓았다고 착각한다.

이제 우리는 많은 시간을 직접 경험이란 다른 사람의 경험을 소비하는데 쓰고 있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사람들은 더 이상 경험의 의미를 음미하지 못한다. 타인이 SNS에 공유



경험의 멸종

크리스틴 로젠 지음/이영래 옮김/여크로스

한 영상을 통한 ‘간접 체험’이 ‘직접 경험’의 자리를 대체한다.

사람들은 왜 ‘공상의 경험’에 매료되는가. 게임을 속달하는 데 걸리는 지루한 시간, 맛집에 가기 위해 줄 서서 기다리는 불편함과 같은 불편함을 손쉽게 해소해주기 때문이다. 클릭 한 번으로 여가부터 놀이, 식사까지 간접 체험할 길이 열리면서 경험은 ‘속도와 효율’로 소비되는 상품이 된다. 저자는 “무의식적으로 경험을 아웃소싱하는 세계가 진짜 당신이 살고 싶은 곳이나”고 물으며, 불확실성과 잠재적인 위험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살아 있는 경험’을 하라고 조언한다.

364쪽. 1만9800원.

/김현정 기자 hjk1@



▲트럼프 “관세 소송 패소 시 韓·日 무역 합의 무효” 압박 /사진 뉴시스

▲구글, 개인정보 침해 소송 패소…6000억원 배상 판결

▲일본 정부, 中 주재 기업에 반간첩법 대응책 마련 요구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한반도 모델 적용 가능”…美 안보 보장 참여 촉구

▲중국, 미국산 일부 광섬유에 최대 78.2% 반덤핑 관세 부과

▲트럼프 지명 연준 이사 후보 “통화정책 독립성 지켜야”